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슈퍼볼' 독점 생중계

2022. 2. 11.



- 세계 스포츠 단일 경기 이벤트 중 가장 많은 시청자 수 자랑하는 '슈퍼볼', 쿠팡플레이가 라이브 중계
- 당대 최고 아티스트들의 공연 '슈퍼볼 하프타임 쇼' 무대도 생중계 예정 에미넴, 스눅 독, 메리 제이 블라이즈, 켄드릭 라마, 닥터 드레 공연 예고

2022. 2. 11. 서울 - 쿠팡플레이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기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Super Bowl)'을 독점 생중계한다.

쿠팡플레이는 한국시간 14일 오전 8시 30분에 열리는 미국프로미식축구(NFL) 2021-22 시즌 마지막 경기인 '슈퍼볼'을 생중계로 전달한다. 국내 미식축구 팬들에게 꾸준히 NFL 중계를 선사해온 쿠팡플레이는 시즌을 마감하는 '슈퍼볼'까지 한국어 해설을 곁들여 생생하게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이다.

'슈퍼볼'은 NFL의 결승전으로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NFC)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AFC)의 결승팀이 단판 승부를 벌이는 역사적인 스포츠 이벤트다. 미국에선 매년 2월 두 번째 일요일에 '슈퍼볼'이 열리며, 해마다 단일 경기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행사다.

이번 '2022 슈퍼볼'은 NFC에서 LA 램스가 올라오고 AFC에서 신시내티 벙골스가 진출해 양 팀 간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팀 모두 최근 '슈퍼볼' 무대를 밟지 못한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플레이가 예상된다.



특히 신시내티 벵골스는 지난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슈퍼볼’ 진출을 이뤄내 사상 첫 우승을 노린다. LA 램스는 중립경기장을 선택해 치러지는 ‘슈퍼볼’에서 이례적으로 홈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팬들이 보는 앞에서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쿠팡플레이는 ‘슈퍼볼’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과 후반 사이에 펼쳐지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도 생중계한다.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세계적인 가수들이 오르는 꿈의 무대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번 무대에선 에미넴, 스눅 독, 메리 제이 블라이즈, 켄드릭 라마, 닥터 드레가 합동 공연을 예고했다.

앞서 쿠팡플레이는 지난해 9월부터 NFL 개막전을 시작으로 정규 시즌 동안 매주 3~4개 경기를 비롯해 플레이오프 전 경기를 독점 생중계했다. 이를 통해 미식축구 경기를 라이브로 시청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국내 미식축구 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NFL 라이브 중계 플랫폼으로 알려지게 됐다.

한편, 쿠팡플레이는 모바일, 태블릿, PC 웹사이트(www.coupangplay.com)뿐만 아니라 스마트TV에서도 접속할 수 있어 큰 TV 화면으로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